

경기도 결핵관리 전산화 사업



윤배중 / 경기도 보건과장

우 리나라에서 질병관리 체계 중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결핵관리 체계이다. 단일 질병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전국 결핵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핵관리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유일한 질병관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결핵관리 체계내에서 등록, 관리되고 있는 환자는 '9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추정환자수의 38.8%로 나머지는 발견되지 않은 경우와 치료받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경우이다.

그간 5년마다 실시된 전국 결핵실태조사 결과 유병률의 변동을 보면 1965년 5.1%, 1970년 4.2%, 1975년 3.3%, 1980년 2.5%, 1985년 2.21%, 1990년 1.8%로 점점 그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결핵균 양성률도 1965년 0.94%, 1970년 0.74%, 1975년 0.76%, 1980년

0.54%, 1985년 0.44%, 1990년 0.24%로 점점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유병률과 균 양성률 감소속도가 현재의 결핵관리 체계로 계속 가능한지의 여부는 누구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국가 결핵관리 체계내에서 보건소에 등록, 관리되고 있는 환자는 추정환자의 약 20%에 불과하며, 나머지 약 80%의 경우는 민간의료부문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발견하지 못한 환자들로 국가 결핵관리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91년 초 결핵연구원에서 열린, 결핵환자 신고율 및 치료효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보사부가 실시한 서울시 중랑구 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전산화 이외의 방법으로는 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결핵관리 전산화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건의를 함에 따라 경기도 결핵관리 전산화 사업을 구체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지방보건의행정 조직내에 독립된 보건전산망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핵 전산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요인이 되어 그 추진에 있어 시행착오 및 좌절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

다. 행정적으로는 내무부의 사전승인과 보건사회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러한 승인과정에서 도가 나서서 할일이 못된다는 등 협조부서의 비협조로 애를 먹기도 하였다.

다행히 결핵관리 전산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보건전산망 확충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는 연세대학교 채영문 교수에게 의뢰하여 쾌히 승낙을 받았으나, 보건전산망이 전무한 상태에서 하드웨어를 보급한다는 것은 예산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기기구입에 따른 행정절차의 까다로움으로 목적수단이 바뀌게 되는 행정 현상까지 경험해야만 했다. 그러나 해야만 된다는 신념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총사업비 3억 1,500만 원을 투자한 결과 드디어 도 보건과, 결핵협회 도지부, 41개 보건소에서 과일서버, 네트워크, 프린터, 모뎀 등 컴퓨터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난 뒤에는 컴퓨터 상호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이는 전산에 문외한인 도 보건과 수준에서는 그 해결이 곤란하여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다행히 수원시 권선구 김찬호 보건소장, 연세대학교 채영문 교수, 그리고 전산에 관심이 있는 4명의 공중보건 의사와 팀을 이루면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감에 따라 이제는 머지않아 이르게 될 우리가 목적하는 전산화에 의한 결핵관리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5년마다 실시되는 제6차 전국 결핵실태조사 결과 추정환자수의 61.2%가 미발견 상태에 있어... 결핵환자 신고율 및 등록률을 높이고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결핵관리전산화 사업을 추진 ●●

이러한 노력은 결핵 전산화뿐 아니라 전염병 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국립보건원과 공동으로 감염병 감시체계 전산망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중이며, 모자보건이나 다른 보건사업으로 이 전산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 도는 '94년에 5개 시범지역 보건소와 관내 보건지소에 전산망을 설치하고, 앞으로 경기도 -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를 잇는 보건전산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끝으로 결핵전산망을 추진하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은 옳은 일을 실천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결하는 과정에는 예기치 못한 제약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심 없는 업무추진은 상사, 동료, 직원 그리고 관련학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유도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러한 경기도의 조그만 노력이 우리나라 보건행정의 개선 내지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